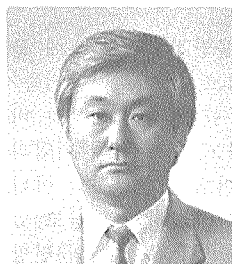


'90년대의 첫 해를 보내며

석진철 / 본회 이사
오리온전기(주) 사장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며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할 '90년대의 첫 해를 맞이했던 것이 었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가고 며칠후면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9월 당사가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합작으로 설립한 오리온전기부품 주식회사가 본격적인 칼라 브라운관 생산에 돌입하여, 금년도에만 약 700만달러 상당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고 한편 각 선진국들의 자국기술 보호추세로 기술 이전을 기피해 오던 대형브라운관 제조기술을 도입한 것도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시감을 향상시킨 칼라 및 모노크롬 FS(Full Square)관의 양산과, 그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오실로스코프용 CRT의 양산 돌입 등을 또 다른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수로서, 그간 우리나라가 세계 6대 전자 산업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온 당사가 금년 10월로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당사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회와 새로운 책

임감을 느끼게한 한 해였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50년대말 진공관 라디오로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그간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여 왔는데, 특히 '70년대 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연평균 35%의 생산물량의 증가와 36.6%의 수출신장을 이룩하며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양의 팽창은 내적인 질의 성장을 이룩하기도 전에 선진국들과의 마찰을 초래하게 되었고, 급기야 선진국들의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받게 되었다. 그 결과 각 선진국들은 수입규제 장벽을 높이고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핵심기술 및 부품의 이전을 기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무기화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해 오거나 과도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등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80년대 말 국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임금시대의 도래와 그로 인한 원가상승 및 국제경쟁력 약화, 노동인력의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 및 노동생산성 저하, 각 기업들의 투자심리 감퇴 등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극

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내외적인 여건이나 환경은 CRT산업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금년의 CRT산업은 상반기, 지난해 중국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원화의 급격한 절상 등으로 인해 경기가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북경 아시안게임과 이탈리아 월드컵 축구 및 동구시장의 급속한 개방에 따른 중국향 및 유럽향 물량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전자산업의 경기가 침체인데 비해 CRT의 생산 및 수출은 금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새해를 바라보는 전망은 결코 밝다고 만은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상술한 여러가지 여건 외에도 금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페르시아만 사태는 국제원유가의 인상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세계각국은 최악의 경우 제3의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브라운관용 Glassware 제조업체들을 필두로 각 부품 업체들도 가격인상을 체비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정치, 사회, 경제적

* 送年특집 / 1990年度 電子産業을 總點檢한다 *

인 불안정으로 도소매 물가가 인상되고, 설비비 및 건축자재비가 급등함에 따라 재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기업의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새해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CRT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CRT업체 및 관련 부품

업체들의 기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자체기술력의 확보 및 증대를 위한 R&D투자나, 핵심부품의 국산화,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능력의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정책방안 수립이 절실이 요구된다. 예를들면 첨단제품 및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대폭적인 인센티브제공이나, 기술

획득형 해외투자의 장려 및 국내 기업들 간의 상호 경쟁 일변도로 부터 선택적인 상호협력의 자세로의 전환을 위해 대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의 공조체제를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전자산업이 예전과 같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전자산업인 모두 각 분야에서 심기일전하여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은 정당하게 소비는 알뜰하게